

홀라 페스티벌 12번째 기념공연

내일 오후 7시 한국전통문화전당서 개최
한국홀라협회 · 하늘연 우쿨렐레 연주단 등 무대에

제12회 홀라 페스티벌 기념공연이 오는 23일 오후 7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사)한국홀라협회가 주관하고 전주시 홀라협회에서 주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홀라협회가 선보이는 프로그램과 전주 하늘연 우쿨렐레 연주단과 전주시 홀라협회의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 등 1~2부로 나누어 펼쳐진다. 한국홀라협회가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나나푸아 동호회의 'Hapa-Tuahine', 부안 예화 무용단의 '모아나', 푸아 동호회의 '작은 거품', 여수 이리마 동호회의 '벚꽃 연립' 라 동호회의 '파인애플 공주', 순천 이리마 동호회의 '나성에 가면', 푸아 동호회의 '카우포의 아름다운 속에서', 전주 중화산2

동 주민센터의 'Enjoy 7', 케일로하 동호회의 '남국의 밤' 등이 있다. 하늘연 연주단과 전주시 홀라협회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하늘연 연주단의 '꿈원에서'와 'I'm yours', 오나오나 동호회의 '행복해요', 부안 예화 무용단의 '알로하! 기분좋은 인사', 라 홀라 동호회의 '진주조개잡이', 나나푸아 동호회의 'Kimo hula' 등이 있다. 순정자 한국홀라협회 이사장은 "이번 홀라동호회 공연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도 보여주고 또한 회원들 간 소통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홀라를 사랑해 주시는 동호회 회원들과 전주 하늘연 우쿨렐레 연주단 오정선 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세라젠 전주대에 발전기금 1500만원 기탁

전주대는 지난 20일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젠이 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대학본관에서 진행된 이번 발전기금 전달식은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과 세라젠 이병익 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라젠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세라젠 마스터 V3의 통증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면역기능 관계에 대한 연구임상을 진행하였고, 전주대 남상운 교수(대체의학전공), 조일영 교수(운동처방학과), 박순권 교수(상당심리학과)가 참여했다.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기업 세라젠과 연구·분석을 함께 진행한데 이어 학생을 위한 발전기금까지 전달하게 됐다"라며 "기업과 학교가 서로 발전하는 윈-윈 모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라젠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연구임상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전주대와 남부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는 세라젠과 2010년 업무 협약을 맺은 뒤 대체의학 분야 관련 공동 연구 및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익산 망성초, 아름다운 교육상 학교부서 최우수상 수상

익산 망성초등학교는 제19회 아름다운교육상 시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망성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5급지로 지정된 농촌학교이며, 전교생 35명의 소인수 학교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농촌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전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학교가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러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학교는 MERIT 교육비전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망성 MERIT비전은 Music, Element, Reading, Idea, Talk 5개의 교육 범주에 따라 특성과 교육을 실시한다. MERIT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학생 개인의 감정을 키워주는 맞춤형교육, 1등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가 1등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재능, 기초 기본에 충실한 배움, 창의력, 사고력,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뜻을 찾고 꿈을 이루며, 사랑이 가득한 어린이로 자라나고 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연계되는 예술교육을 통해 1인 3악기, 2운동을 체득할 수 있고, 교내에 꽃시음동산과 망성과수원, 농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연간 살아있는 생태감수성교육이 이루어진다. 2015년부터 지역 어르신 및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히 효 실천 봉사활동을 하며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망성초등학교는 우수한 교육과정으로 타 지역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전일생과 입학생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도 10가구, 총 17명의 학생이 증가하였다. 학교는 이러한 감성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 19회 아름다운교육상 학교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대전개인택시 반딧불회의 무주사랑 장학금 · 이웃돕기 성금 기탁

무주군은 지난 20일 대전개인택시 반딧불회(대표 김병태) 회원들이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1백만 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만 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무주군을 찾은 대전개인택시 반딧불회 김병태 회장 일행은 "반딧불회는 무주가 고향인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친목회로 회원들 모두가 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무주출신 정회원 40명을 포함해 총 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개인택시 반딧불회에서는 해마다 무주반딧불축제에 비롯한 무주관광과 농·특산물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주민과 출향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소외이웃에 '사랑의 빨간 나누기' 행사 추진

진안군은 숲 가꾸기 및 산림패트롤 등 경관복지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층에 겨울철 난방용 빨감을 지원, 사랑의 빨간 나누기 행사를 추진한다. 군은 각 읍·면에서 추천된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에 2톤씩 총 60톤의 난방용 빨감을 22일까지 대상 세대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랑의 빨간 나누기는 동절기를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게 난방용 빨감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과 소외계층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산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화석연료 대체 및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5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출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288-6674	남원지사 622-38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9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요지지사 010-9845-9355	팔백지사 253-6984	남원지사 622-3896	정읍지사 538-3087
	군산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9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와이즈멘 중앙클럽, 송천정보통신학교에 점심 봉사 활동

와이즈멘 중앙클럽(회장 김문기)은 지난 20일 송천정보통신학교(교장 오연호) 학생들에게 자장면, 탕수육 등 점심을 제공했다. 김문기 와이즈멘중앙클럽 회장은 "매번 볼때마다 학생들 모습이 밝아져 봉사하는 우리를 조차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제시 교월동 복지기동대, 소외계층 월동난방 샷시 교체봉사

김제시 교월동 복지기동대(대장 최창인)는 2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를 방문하여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샷시 교체봉사를 실시했다. 이는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7명의 복지기동대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추진된 사업이다. 특히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어려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를 추천 받아 직접 방문, 창문 틈새가 넓고 부서져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